

구수환 감독과 시네마 토크 진행

전북대학교박물관, 故이태석 신부 삶 담은 영화 울지마 톤즈 후속작 '부활' 17일 상영 후 소통

전북대학교박물관(홍찬석 관장)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역민과 함께 영화로 소통하는 박물관 시네마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통한 영화 상영 뿐 아니라 영화 감독, 전문가 등을 초청해 지역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부활'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수환 감독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삶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적 같은 영화 '부활'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위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에 따르면 영화 '부활'은 수단의 슈바이처 故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담은 영화 '울지마 톤즈'의 후속작이다. 이태석 신부의 삶은 10년 전 끝났지만 그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이태석으로 그의 삶을 이어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번 시네마 산책에서는 구수환 감독의 '부활'을 통해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구수환 감독은 KBS에서 스페셜PD 추적60분, KBS일요스페셜, 그리고 100여편의 다큐멘터리

를 제작하고 현재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이사장과 중흥메디텍 미디어 사업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대상 영화가 선정 최고의 독립영화상 방송대상 사회문화부문상, 서재필언론문화상, ABU/CASBAA UNICEF 국제어린이 인권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홍찬석 관장은 "올해로 박물관이 6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사랑받아 온 박물관 시네마 산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수환 감독과의 시네마 토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선착순 예약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제13회 놀인 김한태 문학제' 13일 개최

무주 김한태문학관 다목적영상관에서... 김한태평론문학상에 비평가 김주현 교수

제13회 놀인 김한태 문학제가 13일 무주읍에 소재한 김한태문학관 다목적영상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사)김한태문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하는 놀인 김한태 문학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찬주 무주군의회의장, 전선자 (사)김한태문학기념사업회 회장, 김영전북문인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과 경과보고 및 놀인 약사소개, 인사 및 환영사, 축사,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13회 김한태평론문학상은 비평가 김주현 교수(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받게 됐다.

비평가 김주현 교수는 문단 등단 이후 저널리즘 비평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국 문학의 거장들을 두루 연구해 왔다.

김한태평론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선금



2021년 김한태평론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총평을 통해 김주현 교수의 끈질긴 탐망과 노력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으로 권영민 위원장(前 서울대 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최명표(놀이인문학회장), 전선자 (사)김한태문학기념사업회 회장이 참여했다.

전선자 김한태문학기념사업회 회장은 "김한태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문학제가 올해로 제13회로 이르렀다"며 "한국 비평문학을 진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알찬 문학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문학제는 놀인 김한태 비평의식과 철학을 계승하는 데 큰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문학제를 통해 점차 잊혀져 가는 역사와 비평을 고찰하는 데 큰 역할을 거두고 있는 만큼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놀인 김한태 문학제는 한국 비평문학의 장을 새롭게 열었던 김한태 선생의 문학과 무주지역 문화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백제 무왕이 남셨다' ... 익산천도 입궁식, 서동축제와 연계

13일 서동공원 서동정 특설무대서

익산시는 2021 익산서동축제가 열리고 있는 금마 서동공원에서 백제 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13회 백제 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행사가 13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사)마한백제문화예술제전위원회(위원장 이해석)가 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하며,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시의정을 비롯한 주요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된다.

식전 축하공연 '왕궁 터 잡기'에서 오악사카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봉황과 신선이 사는 이상향적 공간으로 익산 왕궁을 봉황무와 화춤으로 표현한다.

또한 무왕의 탄생, 무왕의 어린시절 서동의 마케는 모습, 황금 발견, 미륵산촌 출현 등을 용 영성과 소년 서동, 승무와 북춤 등으로 풍요로운 익산으로 왕궁 천도의 당위성과 왕의 권위를 연출한다.

본 행사인 '무왕천도'에서는 위풍당당한 장군과 군사를 선두로 기수와 취타대, 왕과 왕비, 승려와 문무백관, 백성, 군인 등으로 구성된 백제 무왕과 익산 천도행렬단이 무왕루에서 서동정까지 이동한다.



지난 2019년에 열린 백제 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이어서 바로 정현을 익산시장의 무왕천도 선포문과 기원문 낭독, 내빈 축사와 격려사가 진행되며 축하공연으로 궁중무, 국악공연, 한국무용, 실용무용, K-POP댄스 익산천가 노래 등이 펼쳐진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는 백제 무왕 익산 천도 입궁식은 백제 무왕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때 한때 수놓은 2021 익산서동축제와 연계 개최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

들에게 위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 되고 백제 왕도 익산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시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까지 펼쳐지는 2021 익산서동축제는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백제 무왕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제작한 백제유등, 해상왕국 백제 위상을 보여주는 LED빛대, 야간경관 산책로 등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익산=이득훈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에 남원 광한루원 일원서 공연 '풍성'

남원시는 '위드코로나'에 시행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2021 '남원 한복문화 가을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오후 2시에 한복시청회 공연 등이 광한루원 일원에서 반가운 대면공연이 펼쳐진다.

먼저 한복시청회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복과 예술분야를 접목해 한복의 멋스러움을 선보이기 위한 특화된 문화공연으로, 한복으로 물드는 늦가을의 정취에 다양한 장르의 선율을 즐길 수 있다.

공연의 첫 무대는 감성 보컬밴드 '뮤즈그레인'으로, 팝을 기반으로 락, 포크 등의 장르를

세밀한 노랫말로 녹여내는 실력과 밴드이며, '제니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혼성5인조 아가펠라 그룹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임을 보여줄 예정이고, 이외에도 재즈밴드 바람처럼, 클래식 앙상블 '디네투'가 출연한다.

또한 꽃담장 기획공연을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에 예촌 the이름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성화를 위해 준비, 노을 팀업, 메모리아, 푸른시절, 오하늘 춘향골담사사랑회 등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재미를 더하는 마당극이 11월 13일과 14일 오후시 관서당 마당에서 공연될 예정이며, 관서당을 배경으로 전통혼례 풍경을 담은 '시집가는 날'은 공연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재미는 물론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추억과 설렘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관서당 마당 볼담길에는 2021 세계사계전북비엔날레 특별 기획전시도 12월 5일까지 진행 중이며, '허디엔들 서여가 없으려' 주제로 광한루원 볼담길과 서여가 함께 잘 어울려져서 예한마당을 잘 표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11월 힐링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김제문화예술회관, 26일 피아니스트 김기영 · 30일 오케스트라 공연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오는 28일 오후 7시 '피아니스트 김기영의 힐링 토크 콘서트'와 11월 30일 오후 7시 공연장 상주단체 (사)드림필의 함께하는 드림 콘서트를 선보인다.

클래식과 영화음악, 즉흥연주를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김기영은 고도의 기교를 구사하는 전형적인 화려한 연주력으로 2007년 서울 신인음악콩쿠르, KBS 신인음악콩쿠르와 중앙음악콩쿠르를 모두 우승하며 국내 공연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2011 말티돈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2012 베를린 스타인웨이 프라이즈 등에서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김제공연에서는 대중적이면서도 작품성 높은 피아노 연주와 일반 클래식에서 볼 수 없었던 관객 즉석 신청곡 이벤트도 진행된다.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이야기로 공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희씨의 듀오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2021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김제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공연문화 증진을 위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다.

"함께하는 드림 콘서트"는 무료공연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을 통해 5번의 공연을 진행했던 공연이 올해 마지막 공연을 선보인다.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한국의 대표 국악인 오정혜와 김제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세미, 전국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실력이 검증된 김산초등학교의 김제 김산나온소리중창단 어린이들이 함께하여 시민들을 찾아간다.

드림필보코노오케스트라의 베토벤, 바하, 브람스의 곡들을 편곡하여 만든 'The



Three B's'를 시작으로 김연아 아이스쇼에서 메인테마로 쓰였던 'Jupiter-Bringer of Jollity', '금과 은 알츠', 뮤지컬 캣츠의 테마곡 'Memory' 등의 오케스트라연주와 김제 김산 나온소리중창단의 피프티 같은 목소리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세미의 감미로운 'Nella Fantasia'와 경쾌하며 합창 'The Storm'의 공연 프로그램을 45인조의 오케스트라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것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소독, 발열 체크, 080 안심콜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용용 시 인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10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or.kr>)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및 무료배부된다.

/김제=곽태 기자

스포츠 도시와 '국기 태권도 활성화' 약속

태권도진흥재단, 수원시와 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1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오영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영환 수원시체육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측은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 '관광·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협력', '주요 사업 및 행사 시 협약 기관 장소·시설 사용 편의 제공' 등을 담은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수원시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 팀의 연고지를 둔 국내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체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청 태권도선수단에는 안홍엽 감독과 김태훈 선수, 김호준 선수 등이 소속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태권도는 이미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의 문화유산인 태권도가 더 많이 사랑받고 더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어기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인구 120만 여명의 도시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태권도 진흥 및 보급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광주·전남 관광재단, 호남권 관광·MICE 활성화 협력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광주·전남 관광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호남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18일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245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호남권 관광·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호남권 관광·MICE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시·도간 연계 관광 및 마이스 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관광 및 마이스 국내·외 공동 마케팅 등이다.

특히 3개 기관은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국내·외 관광 및 마이스 박람회 공동참가, 국내 여행업계 대상 공동설명회, 국내·외 여행업계 및 매체 대상 팸투어 등을 2022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간 대표이사는 "지난 5월 우리 재단이 제안한 3개 재단의 협약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호남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관광재단 남승욱 대표이사는 " 그동안에도 호남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3개 시·도 관광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남관광재단 이진철 대표이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인 관광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 관광재단이 관광정책을 발굴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